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서비스 '호응'

군산시-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군산 공설시장서 실시

군산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3일 군산 공설시장 내 고객센터를 비롯해 채무조정, 자금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및 비금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서민 금융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으며 총 53명(채무조정 19명, 신용회복 18명, 지역업자 자금대출 상담 16명)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처럼 주민인 A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자금에 필요한 상황임에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서민금융 상담을 통해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들은 신영시장, 공설시장, 역전시장을 방문해 방문고객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활동을 가졌다.

일일 상담사로 나선 이계문 원장은 "현재 군산은 고용과 주력산업 위기 등으로 영세 지역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군산시는 찾아가는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커지고 있다"며 "찾아가는 서민 금융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서민 금융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공설시장을 방문

해 이계문 원장과 상담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서민금융 애로가 많이 해소됐으며, 서민금융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3산단 통근버스, 안정적 출·퇴근 환경 제공

익산시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행사업의 만족도조사 결과 근로자 등에게 안정적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7100만원을 들여 45인승 4대의 통근버스가 출근 4개 노선, 퇴근 3개 노선을, 25인승 2대의 통근버스는 야간근로자를 위해 2개 노선을 운행하는 등 하루 총 9회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0여 명 이용에 이어 올해는 하루 평균 170여 명(출

근, 퇴근, 야간 포함)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30%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되었고 두 차례 모두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3산단 영패션(주)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숙(49, 모현동) 씨는 "작년에 이어 계속 통근버스가 있어 편안하게 출퇴근하고 있고 교통비가 따로 들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주)엠에스 정옥미(54, 부송동) 씨는 "통근버스가 계속 운행되어 익숙하고

편안하다"며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살루스안전 오영순(58, 어양동) 씨는 "통근버스 이용 전에는 회사에서 출퇴근을 따로 시켜줘 부담이 많았는데, 통근버스 이용 후 총인원 16명 중 11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퇴근 노선이 출근에 비해 적게 운행되어 내년에는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 상이에 따른 노선 추가 투입 등 산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듣고 내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는 시내권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들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시는 이러한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돼 올해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해경, 가치 중심 조직문화 만들기 가동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욱)는 공감과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만들기 본격 시동을 걸었다.

1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가치 중심의 해양경찰 조직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군산해경이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현장 도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존중, 정의, 소통, 공감의 4대 핵심가치가 해

영경찰 조직문화에 녹아들고 자연스럽게 발현(發現)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 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계적 이행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난해 독립 외청으로 복원되기까지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 및 구난 업무에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

군산해경의 경우 '계급별 소통위원회'를 발족하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업무를 5년 만에 재개하면서 대내외 소통 공감 업무를 시작했다.

또 현장부서인 파출소에 자기 주도 근무제를 도입해 안전 여건과 치안상황 변화에 따라 경찰관이 순찰 장소와 점검 대상을 정하고 훈련과 교육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파출소의 근무방식

이 바뀌고 상주 근무를 하던 출장소 일부(개야도, 연도)는 순찰형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박종욱 서장은 "존중과 정의는 미래 사회로 가는 기본가치이고 소통과 공감은 그 기반여건이다"며 "최종 지향점은 바다 안전인 만큼 4대 가치가 최종 지향점을 이끌어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학아동 부모교육 실시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취학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드림스타트 4층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취학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 내 올바른 부모역할 인식을 통해 자녀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도 방법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뒀다.

강의를 들은 한 부모는 "성장과정 에 있는 자녀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부모들이 주변에 많다"며 "자녀를 이해하고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

는 부모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선정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5200만원 확보

익산시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운영비 약 1억5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현황, 지역의 보육 현황, 보육시설의 분포도, 운영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사업의 효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호남 최대의 육아 지원 기관을 토대로 농촌 지역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라는 장점을 부각시켜 심사에 임했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익산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사업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및 풍부한 운영 노하우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경쟁력이 농촌 지역 보육사각지대 해소라는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육아 지원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농촌 지역 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운영비 약 1억5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현황, 지역의 보육 현황, 보육시설의 분포도, 운영계획의 우수성, 추진의지, 사업의 효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민의 농촌지역 육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육아가 즐겁고, 아이가 행복한 육아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산시민들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육아는 책임 지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원금은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에 필요한 수준 높은 운영 인력을 채용하고,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구입, 안전한 차량 임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아동수당 지급 방식 변경 공청회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에 위치한 소공연장에서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장의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패널을 초청해 의견을 들은 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견 수렴 시기에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수당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실질적

인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시정의 전 단계에 시민의 참여를 통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군산시의 시정목표인 만큼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수험생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립모현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23까지 대학수능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녕 스무살, 빛나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활기를 심어주

고, 사회초년생으로의 멋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힐링 프로그램이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설계를 위한 계기도 될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